

1.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과 굳게 하는 ‘성례’

(성경: 눅 22:19-20; 마 28:19 / HC 67문; WSC 89-90,92문)

성경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느끼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에서 믿음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사람의 구원을 굳세게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이 두가지 은혜의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개신교회에는 ‘강단(講壇)’이 제일 앞쪽 중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하나님의 말씀)를 듣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지킴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어른과유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설교단 외에 세례를 위한 기구인 성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는 설교단이 높은 위쪽에 있고 성례단은 낮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세례단이 비치되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듯 설교단과 성례단이 중요한 성령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선언서’에 쓴 내용이라면 성례는 그 아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옆에 붙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증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언서에 성례라는 인증표를 달 때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가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질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2. '세례'는 뭐고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경: 고전 10:12-2; 롬 6:3-4; HC 69문; WSC 94문)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서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가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출생신고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와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세례를 홍해에 비유했습니다. 홍해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파라오가 전차부대를 이끌고 추격해 와 홍해 바닷가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만들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인은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물에 빠져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물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처럼, 세례의 물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 받기 이전에 이미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발라 처음 태어난 장남과 동물이 죽지 않고 구원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피흘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이전 이미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신자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식에서 목사님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000에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선언하면서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세례).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자를 물속에 푹 잠기게 합니다(침례).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례라는 의식에 담긴 ‘내용’, 곧 ‘약속’입니다. 세례의 핵심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약속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에 담긴 복음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배우고 확신하는 자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질문]

1. 세례는 마법적인 힘이 있을까요?

2. 세례는 홍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3. 세례, 믿음의 표와 인?

(성경: 마 28:19; HC 70문; WSC 94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약속(새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물을 통과해(세례)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양식(성만찬의 빵과 포도주)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단순히 ‘우리 믿음’의 표와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 새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세례를 믿음의 표와 인으로 여기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sign)와 인(seal)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만드시고 죄인에게 ‘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죄에 빠져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다시 아들이 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물이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없애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새언약)하십니다. 이렇게 세례는 새언약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게 가르치고 ‘인’, 곧 도장을 찍어 확실함을 보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자나 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표시되고 도장 찍어진 약속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를 통해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더 굳세게 하십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남자에게만 했지만, 세례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남자와 여자, 인종과 연력을 넘어 베풀어집니다. 또한 단 한번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담겨진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세례는 믿음의 표와 인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2. 세례를 통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4.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 마 3:11; HC 72문; WSC 91문)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나요? 학교담임 선생님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행;23);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22:16);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로마 천주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줍니다. 만약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사제가 없어도 산파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례 자체가 죄용서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뿌리는 물은 죄를 씻는 중요한 성수(聖水)라고 생각해 특별한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세례 자체가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치 마법사가 ‘호커스 포커스’ 혹은 ‘아브라카다브라’와 같이 외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 피와 성령님만이 씻겨 주실 수 있습니다. 세례가 신비한 효능이 있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드려진 제사, 곧 은혜로 씻겨 지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의식과 물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고 도장 찍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곧 세례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세례는 한 순간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세례를 우상과 미신적 행위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린 죽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와 인입니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믿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질문]

1.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가 용서 되나요?

2.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나요?

5. 세례가 죄 씻음 자체가 아닌데 왜 하나요?

(성경: 막 16:16; HC 73문)

이제 우리는 세례에 대해 정확하게 압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9:19-20)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세례를 주라’는 단어의 형태가 명령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수단의 분사구문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아라’가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야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는 방법, 세례를 베푸는 방법,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 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정결케되는 것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둘째,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 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 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인, 세례로써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곧 죄 용서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씻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세례를 단순한 ‘상징’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세례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례에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배우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꼭 행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

1. 세례가 구원과 다른데 왜 세례를 계속 베풀어야 합니까?

2. 세례를 베푸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6.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경: 사 44:1-5; HC 74문; WSC 95문)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세례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주는 것은 미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자식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스스로 고백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례를 믿음의 표와 인으로 생각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유아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례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세례는 사람의 믿음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예식에서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가르치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자녀에게도 그 언약을 표시하고 인을 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 용서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손을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사44:3)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고 아직 믿음을 시인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언약의 복음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질문]

1.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 세례는 무엇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입니까?

7. 유아세례와 언약!

(성경: 창 17:7-11; HC 74문; WSC 95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재세례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아세례를 미신이라고 여기고 거절했습니다. 만약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 다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세례파’(Anabaptist)라고 불렀습니다. ‘다시’재, ‘세례’를 붙인 이름이죠. 유아세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비난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면서 유아세례를 도입해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왜 유아세례를 고집하나요? 그냥 어른이 되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왜 유아세례가 미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약에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창 17:7-11)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도 맺은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는 표와 인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와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할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시하고 인친 것이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약하고 언약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능하신 그분이 표하고 인치는 것이 할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자녀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부모에게 주어진 새언약의 자손으로 교회에 속합니다. 비록 아직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의 거룩한 회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언약 백성된 표로 ‘유아세례’를 받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녀에게도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와 그렇군요! 유아세례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고 다장찍는 것이나 꼭 해야겠네요!

[질문]

1. 재세례파의 문제는 무엇이죠?
2.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8. 유아세례의 유익

(성경: 롬 9:8-18; HC 74문; WSC 95문)

우리는 종종 ‘언약의 자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언약의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아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린 아이와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아세례를 받으면 아이가 구원을 받을까요? 유아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를 크게 오해한 경우입니다. 유아세례는 아이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자체가 아이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언약과 비교해 새언약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효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표와 인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아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실망이신가요? 그런 것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나요? 언약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속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은혜를 누리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별 것이 아닐까요? 믿는 자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하게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언약이니깐요! 또 유아세례를 아이에게 베푸는 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죽더라도 구원 받았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유아세례에서 자녀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죄인이라는 것을 유아세례를 주면서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유익입니다.

[질문]

1. 유아세례 자체가 아이에게 구원을 줍니까?

2. 그러면 유아세례를 베푸는 유익이 무엇입니까?